## 미야우라 석탄 기념공원

1888 년에 문을 연 미야우라 갱도는 1968 년까지 미이케 탄광의 주요 갱도였습니다. 석탄 생산량은 약 4,000 만 톤이었고 미이케 탄광에서 가장 오래 가동된 갱도였습니다. 1924 년에는 기존의 수갱을 사갱으로 대체하면서 단층 맨 끝에 있는 탄층까지 채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작업은 고되고 위험했습니다. 한국인 및 중국인 노동자와 호주,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전쟁 포로들은 이 갱도에서 일해야 했습니다.

현재 이곳은 공원이 되었습니다. 열차와 플랫폼, 사갱 입구는 보존되어 있습니다. 1888 년에 지어진 벽돌 굴뚝은 높이가 31.2m 이며 직경은 위쪽이 2.9m, 아래쪽이 4.3m 입니다. 이 굴뚝은 1998 년에 국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는 수백만 년 동안 화석화된 후 탄광에서 채굴된 석탄이 된 나무와 같은 종입니다.

공원 아래에 있는 철도는 옛 미이케 탄광 철도를 위해 1891 년에 깔렸던 첫 번째 노선의 일부입니다. 그 너머로는 미쓰이 그룹에 속한 미쓰이화학(1889 년부터 미이케 탄광을 소유)의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.